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1차 인턴십 과정 마쳐

YTN에 선발된 14명의 일경험 체험 후기

글. YTN 방송기술인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기관이 협약하여 공동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된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이 7월부터 10주간의 기간이 지나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이번 사업과 같은 방송국 인턴형 프로그램은 공개채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난 첫 사례로 KBS와 YTN, BBS 총 3개 방송국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25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인원들은 6월 말 사전직무 교육으로 일주일간 직무 기초/심화 교육으로 일경험 제도의 이해를 비롯해 방송 후반제작 업무와 뉴스·라디오 제작에 대한 방송기술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를 방문해 실감 스튜디오를 체험해보기도 했다.



사전 직무 교육

7월부터는 본격적인 인턴십 과정이 진행되었다. 각 방송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통해 인턴 지원생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 과정을 수행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다양한 부서 방문을 통해 실제 방송 제작 과정 체험과 방송 장비를 다루어보며, 방송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현업 방송기술인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방송기술과 방송기술인에 대해 밀도 있는 경험이 가능한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평소 방송기술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나 방송 워크플로우에 대한 궁금증, 현재와 미래의 방송기술에 대한 조언 등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인턴십은 10주간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었지만 교육생에게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되어 방송기술 직무 혹은 관련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훌륭한 밑바탕을 제공했다.

YTN에 선발된 14명은 기술본부 내의 여러 부서를 순환으로 배치받으며 방송기술 현업 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저마다 느낀 바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과 기술 지면을 통해 앞으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예비 방송기술인들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INTERNSHIP



YTN에서 다양한 방송기술 직무와 교육을 받는 인턴 지원생들

Internship Review



이현지

10주 동안 YTN 인턴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방송기술 업무뿐 아니라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방송국에서 다루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직접 접하고 실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 부서를 2주씩 순환하며 다양한 부서의 특징과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 기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의 마음가짐과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방송기술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김민제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YTN에서 10주간 총 5개의 부서를 경험해 보며 실제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TV를 켜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방송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과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금방 사라질 정도로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10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YTN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성장하며 좋은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지

안녕하세요. YTN의 영광스러운 인턴 1기 오현지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시작부터 가을이 찾아오기까지 총 10주간의 인턴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기술본부의 인프라국과 제작기술국 안에서 다양한 팀을 거치며 뉴스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업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뉴스기술팀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YTN24> 생방송 참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부조정실 내에는 PD 콜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는 TD, 오디오감독, 영상감독 등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방송사고 없이 안전한 생방송 제작을 위해 필요한 협업 정신과 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 엔지니어를 꿈꿔오던 제게 이와 같은 현장 경험은 방송기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간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YTN 기술본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연제

10주간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진로를 다양한 업무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의 기술직 인턴으로서 다양한 장비 운용과 시스템 관리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방송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송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들과 함께하며 얻은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들이 방송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도전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YTN 기술본부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민수

안녕하세요! YTN 인턴십에 참여한 김민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방송국의 꿈을 가졌고, 준비 도중 YTN 기술직 인턴십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주간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었고, 방송할 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작 녹화에도 같이 참여하며 믹싱, 색보정의 업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출부서에서 송출흐름도를 배우며 다양한 신호들이 어떻게 방송국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케이블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0주간 YTN에 있으면서 각 부서 선배님이 정말 친절하고 세세하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 저희를 계속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신 것 잊지 않고 잘 준비해서 방송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성

안녕하십니까! YTN 2024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류호성입니다. 10주간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방송 시스템의 구성과 실제 현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엔지니어의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실제 현업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강한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원동력으로 삼아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선배님들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YTN,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소현

10주간의 YTN 인턴십 프로그램은 제게 큰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할 때 방송기술 엔지니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 장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운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실습도 해보며 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개념을 실제 적용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방송기술에 대한 저의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턴십 과정에서 선배님들께 받은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는 앞으로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의 방송기술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성필

안녕하세요. 지난여름 YTN 기술본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박성필입니다. 5개 부서를 경험하며 방송국에서 방송기술직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팀이었던 뉴스기술팀이 인상 깊은데, 방송기술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조정실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 자체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실제 방송에 관여도 해보면서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과 대화하면서 방송기술직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알려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YTN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종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10주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턴 기간 다양한 부서를 돌면서 평소 관심 있던 방송장비나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송기술직군 외에도 방송국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을 어깨너머로 보며 방송국에 대해 꿈을 더 키워나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많은 선배님과 대화하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국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 방송국에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안녕하십니까! YT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소정입니다. YTN에서 방송기술직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은 방송기술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으며,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0주 동안 각 부서를 2주씩 순환하며 방송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했고, 이론으로만 알던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 신호의 흐름과 기술적 개념들이 장비와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방송 제작 과정에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배운 경험은 방송기술 분야에서 저를 성장시키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YTN에서의 인턴 경험은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석우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나에게 있어 방송이라는 분야는 미지의 세계, 개척해야 할 신대륙과도 같았다. 나에게 방송은 단순한 영상이나 소리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탐험하고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그러나 그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방송기술의 흐름을 알아야 했다. 방송기술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찰을 단 선배님들은 마치 우주를 떠도는 별들이 궤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과 같은 분들이었다. 이들은 방송이라는 무대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었고, 그들의 노고 없이는 그 어떤 달도 빛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번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가 흘리는 노력이라는 땀방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나의 발걸음은, 그들의 빛이 되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방송이라는 세계를 넘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지금의 나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수민

안녕하세요. 2024 YTN '방송 특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수민입니다. 저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YTN에서 여러 부서를 경험하면서, 방송기술 직무의 다양성과 방송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선배님들의 여러 가르침과 조언들을 토대로 방송기술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발전하여 방송기술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찬혁

YTN에서의 10주간 인턴 생활 동안, 5개의 부서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기술직이라 하면 흔히 부조정실에서의 작업만 떠올리기 쉬운데, 장비 관리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24시간 생방송 뉴스를 책임지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뉴스기술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방송기술인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방송뿐만 아니라 제작기술팀에서 녹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